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우울, 불안 및 그릿과의 관계

신 은 희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Depression, Anxiety and GRIT

Eunhee Shi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depression, anxiety, and grit in nursing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the study subjects were 93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by descriptive analysi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anxiety ($r=.616, p<.001$) and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grit ($r=-.379, p<.001$) and between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r=-.230, p=.026$). Gri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achievement ($r=.407, p<.001$). **Conclusion:**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reduce depression and anxiety and increase grit in order to improv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Depression; Anxiety; GRIT; Academic achievement; Nursing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면서 동시에 초기 성인기 연령으로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있으며, 독립의 지연과 성인기 진입을 위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전공 학업,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 자신의 가치관 정립 및 취업 준비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단계이다.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과 정신 병리를 검증한 연구를 보면, 학업 문제에서 장래 및 진로 문제, 가치관 문

제, 경제 문제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특히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엄격한 교과과정, 과중한 학습량, 엄중한 행동규범,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다양한 임상실습 수행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2], 이로 인한 우울 등이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3].

대학생활의 적응, 학업수행, 중독, 삶의 만족도 등에 우울과 불안 등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4], 우울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우울 수준이 낮은 대학생들에 비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거나 자살 생각을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Eunhee Shin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83 Sangjidae-gil, Wonju 26339, Korea.
Tel: +82-33-738-7623, Fax: +82-33-738-7620, E-mail: hshin1970@sangji.ac.kr

- 본 논문은 2018년도 상지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Sangji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18.

Received: Jul 30, 2020 / Revised: Nov 2, 2020 / Accepted: Nov 2, 2020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5]. 특히 의과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우울은 삶의 만족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6]. 우울은 간호대학생의 정신적 건강 문제 중 해결해야 할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우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학업성취도가 저하되거나 의욕상실로 이어져 간호사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7]. 또한 불안은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정신적 건강문제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8]. 보고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은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고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해야 하며 임상실습에 대한 압박감이 있을 때나 시험이나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불안이 주로 나타난다고 한다[9]. 이러한 불안감은 3학년에서 가장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안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3].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면서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함이 필요하겠다. 현재까지 연구들에서 우울과 학업성취와의 관련된 변인으로써 학업탄력성[10], 스트레스 대처방법[7]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이 설정한 목표의 성취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자신이 타고난 재능보다 그 이상의 것에 도전과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의 비인지적인 특징으로 그릿이 강조되며 주목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확인되었다[11].

최근 연구에서 지능과 같은 선천적 요인이 학업성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기존의 보고[12]와 달리 노력과 끈기가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3]. Duckworth 등[14]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지능 및 재능은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개인이 설정한 목표의 성취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과 투지인 ‘그릿(GRIT)’이라고 하였고, 특히 학업 분야에서 성취도와 중도 탈락을 예측하였다. 또한 Ericsson과 Ward [15]는 그릿이 높은 사람은 어렵고 힘든 과제라도 할 수 있다는 신념과 함께 그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며,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실패를 겪더라도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유지할 수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 비슷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른 성과를 내는 것에 주목하였고 이는 뛰어난 성취를 달성한 사람들이 그릿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정서문제를 연구한 결과들이나 그릿과 우울과 같은 정신적 건강과의 상관에 대해 규명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학업성취도에 있어 그릿을 연계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및

그릿과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자 하며, 각 개념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학업성취도와 우울, 불안 및 그릿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되는 요인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이를 통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 불안 및 그릿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본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3학년 52명과 4학년 46명 가운데 연구목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한 총 9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일모집단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에 필요한 상관계수값을 선행연구[16,17]를 참조하여 중간크기의 값인 .30,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로 하여 84명이 연구대상자수로 산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충분한 대상자 크기로 판단되었다.

3. 연구도구

1) 학업성취도

1학년 1학기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직전 학기까지 수강한 모든 과목의 성적을 종합 평가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우울

Radloff (1977)가 제작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도구를 국내에서 Shin [18]이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CES-D는 20문항으로 “전혀 그런 적이 없다” (0점)에서 “언제나 그렇다” (3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분포는 0~60점까지이다. 3문항은 역산처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 [18]연

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3) 불안

Beck, Emery, Greenberg (1985)가 고안한 BAI (Beck Anxiety Inventory)를 Kwon (1992)이 번안하고 Yook과 Kim [19]이 한국어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불안의 인지, 정서, 행동, 신체적 영역을 포함하여 21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심하게 그렇다” (3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판 BAI의 Cronbach's α 는 .94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4) 그릿 검사

Duckworth와 연구자들이 그릿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12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는 Original Grit Scale (Grit-O)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 설문지는 노력지속성(perseverance of effort)과 흥미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그릿을 측정하기 위하여 Duckworth와 동료들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 (GRIT-O)을 Lee [20]가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도록 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흥미일관성, 노력지속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문항은 역산 처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는 .79였다.

4.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

본 연구가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관련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함에 따라 학업성취를 파악할 수 있는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하는 S대학교의 간호학과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모집공고문을 게시하고 본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학생 93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교수자임에 따라 학생들이 자발적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에 따라 연구자가 아닌 공동연구자 1명이 연구자를 대신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공동연구자는 모집공고문을 통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참여의 자유, 익명성 등을 포함하는 설명서 및 동의서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설문문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대상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면 연구자는 설문 작성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였다. 대상자들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대상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IRB No. 1040782-190401-HR-01-42).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며, 학업성취도와 우울, 불안 및 그릿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우울, 불안, 그릿 및 학업성취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불안, 그릿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 test를 실시하였다. 학업성취도와 우울, 불안 및 그릿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9명(20.4%), 여학생이 74명(79.6%)이었으며, 학년은 3학년이 44명(47.3%), 4학년이 49명(52.7%)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45명(48.4%), 기독교 23명(24.7%), 가톨릭 17명(18.3%), 불교 8명(8.6%) 순이었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 36명(38.7%), “만족이다” 35명(37.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간호학과에 진학한 동기로는 취업 보장이 44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적성 또는 흥미를 고려한 경우가 29명(31.2%)이었다. 현재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34명(36.6%), “건강하지 않다” 32명(34.4%)이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다” 46명(49.5%), “보통이다” 26명(28.0%), “매우 좋다” 18명(19.4) 순이었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은 “보통이다” 39명(41.9%), “자신이 없다” 25명(26.9%), “자신이 있다” 17명(18.3%) 순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우울, 불안, 그릿 및 학업성취도

우울 정도는 평균 17.77 ± 11.79 점, 불안감은 평균 9.94 ± 9.26 점이었으며, 그릿은 전체 평균은 2.90 ± 0.52 점, 흥미일관성은 2.83 ± 0.59 점, 노력지속성은 2.98 ± 0.67 점이었다. 학업성취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85.71 ± 4.50 점이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93)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19 (20.4)
	Female	74 (79.6)
Grade	3rd	44 (47.3)
	4th	49 (52.7)
Religion	Christian	23 (24.7)
	Catholic	17 (18.3)
	Buddhist	8 (8.6)
	None	45 (48.4)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Very satisfied	9 (9.7)
	Satisfied	35 (37.6)
	Moderate	36 (38.7)
	Unsatisfied	9 (9.7)
	Very unsatisfied	4 (4.3)
Application motivation on nursing	Job	44 (47.3)
	Inducement	19 (20.4)
	High school grade	-
	Aptitude/Interest	29 (31.2)
	Service mind	-
Perceived current physical health status	Very healthy	4 (4.3)
	Healthy	17 (18.3)
	Moderate	34 (36.6)
	Unhealthy	32 (34.4)
	Very unhealthy	6 (6.5)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	18 (19.4)
	Good	46 (49.5)
	Moderate	26 (28.0)
	Bad	3 (3.2)
	Very bad	-
Confidence on nursing major	Very confident	5 (5.4)
	Confident	17 (18.3)
	Moderate	39 (41.9)
	Little confident	25 (26.9)
	Very little confident	7 (7.5)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 불안, 그릿 및 학업성취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는 성별($t=-2.97, p=.006$),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F=10.36, p<.001$), 간호학과 지원 동기($F=6.51, p=.002$), 현재 인식하는 건강상태($F=4.43, p=.003$) 및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F=8.1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test 결과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간호학과 지원 동기가 취업보장이나 적성 또는 흥미가 아니라 주변의 권유에 의한 것일수록,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불안감은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F=3.48, p=.011$), 현재 인식하는 건강상태($F=6.23, p<.001$),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Table 2. Degree of Depression, Anxiety,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N=93)

Variables	M±SD	Range (min~max)
Depression	17.77±11.79	1.00~54.00
Anxiety	9.94±9.26	0.00~52.00
GRIT	2.90±0.52	1.67~4.42
Consistency of interests	2.83±0.59	1.50~4.33
Persistence of effort	2.98±0.67	1.50~4.67
Academic achievement	85.71±4.50	74.49~95.00

($F=3.40, p=.021$) 및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F=3.05, p=.02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test 결과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현재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은 성별($t=2.88, p=.007$),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F=2.91, p=.026$), 현재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F=2.85, p=.029$), 주변사람들과의 관계($F=3.08, p=.031$),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F=3.86, p=.006$)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é test 결과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감 또는 자신감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대상자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4. 학업성취도와 우울, 불안 및 그릿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우울, 불안, 그릿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은 불안($r=.6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릿($r=-.38, p<.001$)과 학업성취도($r=-.23, p=.026$)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불안은 그릿($r=-.24, p=.023$)과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릿은 학업성취도($r=.41,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우울과 불안이 높을수록 그릿과 학업성취도는 낮음을 나타낸 반면에 그릿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높음을 나타냈다(Table 4).

논 의

현재까지 대학생 또는 간호대학생들의 우울 또는 불안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었고,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학업적 자기효능감[21], 자기주도성[22]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들 연구는 각 변인 간 전반적 높고 낮음과 관계를 연구하는 단계로 개인이

Table 3. Depression, Anxiety,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3)

Variables	Categories	Depression		Anxiety		GRIT		Academic achievement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11.05±10.95	-2.97	6.00±11.87	-1.71	3.18±0.44	2.88	85.52±3.40	0.62 (.535)
	Female	19.50±11.43	(.006)	10.95±8.26	(.100)	2.84±0.52	(.007)	85.76±4.76	
Grade	3rd	17.30±11.47	-0.37	11.09±8.77	1.14	2.94±0.48	0.59	86.16±4.74	1.41 (.165)
	4th	18.20±12.16	(.713)	8.90±9.65	(.256)	2.87±0.57	(.556)	85.30±4.29	
Religion	Christian	20.30±13.54	1.11	11.87±9.11	0.50	2.89±0.59	0.28	86.76±4.88	0.35 (.788)
	Catholic	16.24±9.83	(.352)	10.06±12.24	(.681)	3.01±0.52	(.844)	84.84±3.64	
	Buddhist	12.00±7.78		8.38±11.19		2.88±0.41		85.71±3.89	
	None	18.09±11.98		9.18±7.77		2.88±0.52		85.50±4.73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Very satisfied	10.44±11.25 ^a	10.36	6.78±8.98 ^a	3.48	3.31±0.41 ^b	2.91	88.94±4.11	1.25 (.294)
	Satisfied	13.17±7.93 ^a	(<.001)	8.06±6.59 ^a	(.011)	2.90±0.48 ^a	(.026)	86.17±4.65	
	Moderate	19.39±10.27 ^a	a < b < c	10.19±9.07 ^a	a < b	2.91±0.51 ^a	a < b	85.87±3.89	
	Unsatisfied	26.33±14.93 ^b		13.22±9.56 ^a		2.76±0.63 ^a		82.65±3.55	
	Very unsatisfied	40.75±4.57 ^c		23.75±18.93 ^b		2.33±0.50 ^a		79.91±3.89	
Application motivation on nursing	Job	14.98±10.17 ^a	6.51	8.34±8.50	2.39	2.84±0.51	2.76	85.53±4.23	1.07 (.368)
	Inducement	25.89±14.94 ^b	(.002)	13.84±12.43	(.097)	2.76±0.68	(.069)	83.98±5.19	
	Aptitude/Interest	16.69±9.80 ^a	a < b	9.79±7.54		3.08±0.39		86.85±4.03	
Perceived current physical health status	Very healthy	11.75±9.22	4.43	3.25±2.22 ^a	6.23	3.23±0.39	2.85	83.42±1.82	0.89 (.472)
	Healthy	9.29±6.99	(.003)	4.24±5.46 ^a	(<.001)	3.14±0.38	(.029)	87.05±3.11	
	Moderate	17.68±10.77		10.06±8.09 ^a	a < b	2.94±0.56		83.91±13.85	
	Unhealthy	22.25±11.89		11.31±8.36 ^a		2.69±0.54		83.85±4.94	
	Very unhealthy	22.50±16.69		22.50±16.31 ^b		2.99±0.23		89.77±3.40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	12.83±8.13	1.70	6.78±6.76 ^a	3.40	3.23±0.43	3.08	87.64±3.57	1.13
	Good	18.93±12.13	(.172)	11.13±9.27 ^a	(.021)	2.84±0.49	(.031)	83.32±12.03	(.343)
	Moderate	18.23±11.81		8.50±6.41 ^a	a < b	2.79±0.56		85.74±4.78	
	Bad	25.67±20.65		23.00±26.51 ^b		2.89±0.76		82.94±3.93	
Confidence on nursing major	Very confident	11.20±14.22 ^a	8.13	10.60±11.46	3.05	3.48±0.28 ^b	3.86	90.35±2.68	0.86
	Confident	11.41±7.43 ^a	(<.001)	5.59±5.22	(.021)	3.13±0.46 ^a	(.006)	86.06±4.29	(.494)
	Moderate	15.31±9.38 ^a	a < b	8.59±7.36		2.87±0.41 ^a	a < b	84.73±13.01	
	Little confident	23.00±10.92 ^a		12.88±10.00		2.80±0.51 ^a		84.03±4.51	
	Very little confident	33.00±15.46 ^b		17.00±15.85		2.55±0.91 ^a		81.23±3.90	

Table 4. Correlation among Depression, Anxiety, GRIT on Academic achievement (N=93)

Variables	Anxiety	GRIT	Academic achievement
	r (p)	r (p)	r (p)
Depression	.62 (<.001)	-.38 (<.001)	-.23 (.026)
Anxiety		-.24 (.023)	-.04 (.720)
GRIT			.41 (<.001)

설정된 목표의 성취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과 투지의 측면을 반영한 내적 자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수 있는 주요 정서적 문제인 우울, 불안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과 함께 그릿과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관련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우울 정도는 60점 만점에

17.77±11.79로 약간의 우울 정도를 나타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한 연구에서의 결과인 19.23±7.70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Kim과 Kim [23]이 보고한 21.5점(63점 만점)보다는 약간 낮았다. 대상자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p=.006),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감(p<.001), 간호학과 지원 동기(p=.002), 현재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p=.003) 및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대상자의 우울 정도가 주관적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전공에 대한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Park과 Jang [7]의 결과와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가 주관적 건강상태, 전공에 대한 만족도, 전공에 대한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Shin [10]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비록 본 연구결과에서 전체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낮게 나타났지만 우울 문제를 지닌 학생들의 경우 적절한 중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욕 상실과 함께 전공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하고 이는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를 포기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입학 초기부터 우울 등을 평가하고 지도교수의 학업상담 등과 같은 지지체계 마련을 통해 우울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겠다.

대상자의 불안은 63점 만점에 9.94 ± 9.26 로 낮았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p=.011$), 현재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p < .001$),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p=.021$) 및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p=.021$)에서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 측정도구가 비록 동일하지는 않지만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Yang [24]의 연구에서 불안이 4점 만점에 2.19였으며,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25]의 연구에서는 2.16점에 비해 같은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연구에서는 불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해서 기준에 보고된 연구에서 전공과 관련하여 만족한 군에서 불만족한 군보다 불안 수준이 더 낮았다고 보고한 Lee와 Kim [26]과 같이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의 대부분이 전공 만족도가 중등도 이상으로 높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군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군에서의 불안 수준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직접 파악한 결과는 보고되지 않아 이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그릿은 5점 만점에 2.90 ± 0.52 점이었으며, 하위영역인 흥미일관성은 2.83 ± 0.59 점, 노력지속성은 2.98 ± 0.67 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그릿은 3.31점, 흥미일관성은 3.27점, 노력지속성은 3.36점을 보고한 연구[27] 및 간호대학생이 포함된 대학생의 그릿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11]에서 전체 그릿은 3.37점, 흥미일관성은 3.24점, 노력지속성은 3.37점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결과의 점수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으나,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노력지속성보다 흥미일관성이 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는 점은 일치하였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 성별($p=.007$), 전공에 대한 만족도($p=.026$), 현재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p=.029$), 주

변 사람들과의 관계($p=.031$) 및 전공에 대한 자신감($p=.006$)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경우 그릿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최근 간호대학생들이 본인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취업 등을 위해 주의의 권유 등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학생들이 간호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학업을 지속하여 간호사 국가고시까지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현재까지 연구들[20, 28]이 그릿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던 것에 비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업성취도는 대부분 대학생의 학업성취도 연구에서 이용되는 평점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직전 학기까지의 평점 평균을 자가 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85.71 ± 4.50 점이었으며, 비록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적성고려 유무, 간호학 만족도 및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Lee [28]의 연구결과와 같이 적성 또는 관심을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진학한 군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 및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군일수록 평균 점수가 높아짐을 보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우울은 불안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그릿과 학업성취도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우울과 불안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결과[8]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및 불안과 그릿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거의 없으나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자존감은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28] 결과가 보고되었고, 간호대학생의 불안이 자아탄력성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연구결과[26]가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우울과 불안은 장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성을 동반하는 열정을 의미하는 그릿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릿과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Slick과 Lee [29]의 연구에서 한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과 학업성취를 연구한 결과[20]에서도 그릿과 학업성취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처럼 그릿과 학업성취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20]와 일치되게 본 연구에서도 그릿과 학업성취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문제 상황을 회피하게 하는 우울 정서는 그것을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우울과 불안 요소를 감소시키며 그것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에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에게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그것을 높이는 방법으로 학업에 대한 관심, 지속적인 연습, 자신의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목적의식,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증대하는 프로그램 개발[11]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그것을 높임으로써 학업성취와 함께 간호사 국가시험까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이후 간호사로서 어려운 갈등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흥미에 대한 일관성과 노력의 지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우울, 불안 및 그것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 또는 자신감이 낮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아짐을 보였고 반면 학업성취도와 그것 수준은 낮음을 나타냈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우울은 불안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반면에 그것과 학업성취도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것과 학업성취도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 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과 함께 학생들이 어려운 갈등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흥미일관성과 노력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그것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과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연구의 해석과 일반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들의 그것 수준에 관련하는 요인들과 그것과 관련되는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그것이 학업성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특성인 흥미일관

성과 노력지속성이 어떠한 관계로 경험적으로 확인되는지 또는 이러한 그것이 시간적으로 변화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한 중단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Lee EH.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with structural equation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9(1):25-52.
2. Jung MH, Shin MA.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170-177.
3. Yang S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the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in Junior college in some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1;10(3):376-390.
4. Roh MS, Jeon HJ, Kim H, Han SK, Hahm BJ. The prevalence and impact of depression among medical student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 in South Korea. *Academic Medicine*. 2010;85(8):1384-1390. <https://doi.org/10.1097/ACM.0b013e3181df5e43>
5. Eisenberg D, Golberstein E, Gollust SE. Help-seeking and access to mental health care in a university student population. *Medical Care*. 2007;45(7):594-601. <https://doi.org/10.1097/MLR.0b013e31803bb4c1>
6. Kim JW, Han DH, Lee YS, Min KJ, Park JY, Lee KS. The effect of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temperament, and character on life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y Association*. 2013;52(2):150-156. <https://doi.org/10.4306/jknpa.2013.52.3.150>
7. Park HJ, Jang IS.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1): 14-23.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14>
8. Shiaki N, Shono M, Kitamura T. Effects of coping styles and stressful life events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Japanese nursing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009;15(3):198-204. <https://doi.org/10.1111/j.1440-172X.2009.01745.x>
9. Suliman WA, Halabi J. Critical thinking, self-esteem, and state anxiety of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2007;27(2):162-168. <https://doi.org/10.1016/j.nedt.2006.04.008>
10. Shin SH.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depression.

-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6;22(1):14-24.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1.14>
11. Han SC.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Chonbuk: Th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7. p. 31-35.
 12. Sohn YW. Expert, their rule. Seoul: Samtoh; 2005. p. 29-57.
 13. Ericsson KA. Attaining excellence through deliberate practice: insights from the study of expert performance. In: M. Ferrari, editor. The Educational psychology series. The pursuit of excellence through education. Mahwah, NJ,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2002. p. 21-55.
 14. Duckworth AL, Peterson C, Matthews MD, Kelly DR.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7;92(6):1087-1101.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15. Ericsson KA, Ward P. Capturing the naturally occurring superior performance of experts in the laboratory: toward a science of expert and exceptional performa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07;16(6):346-350. <https://doi.org/10.1111/j.1467-8721.2007.00533.x>
 16.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p. 109-144.
 17. Kang HC. Effect size and sample size calculation using G-power. Seoul: Freeacademy; 2019. p. 93-95.
 18. Shin KR. Depression among Korean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1;31(3):391-400. <https://doi.org/10.4040/jkan.2001.31.3.391>
 19. Yook SP, Kim ZS. Clinical study on the Korean version of Beck Anxiety Inventory: comparative study of patient and non-patien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7;16(1):185-197.
 20. Lee SR. Effect of grit, deliberate practice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14. p. 42-105.
 21. Joo YJ, Lee JW, Cho SY.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task-value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hievement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2012;8(1):73-92. <https://doi.org/10.26857/JLLS.2012.04.8.1.73>
 22. Kim SH, Kim YS, Yim HR.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directed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3;20(10):339-368.
 23. Kim GH, Kim HJ. The effect of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on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6;15(4):500-507.
 24. Kim EY, Yang SH.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5;21(4):417-425.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4.417>
 25. Kim EH. Relationship of anxiety, empathy,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8;18(8):326-337. <https://doi.org/10.5392/JKCA.2018.18.08.326>
 26. Lee YK, Kim HL. The relationship of ego resilience and involvement with the experience of anxiety and perceived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4):1953-1962. <https://doi.org/10.5762/KAIS.2014.15.4.1953>
 27. Lee SJ, Park JY.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2):269-276. <https://doi.org/10.14400/JDC.2018.16.2.269>
 28. Lee HI.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08;22(1):97-107.
 29. Slick SN, Lee CS. The relative levels of grit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otential dropping-ou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Technology*. 2014;4(1):649-651. <https://doi.org/10.14400/JDC.2014.12.8.61>